

# 의사면허 제 1 호

## 오 공 선박사 <下>



### □ 이 재 홍

#### 고아들의 아버지로 소파상 수상

두번째 임지인 광주로 내려간 해관은 광주 야소교병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한편 나병 환자의 수용 의료 기관인 애양원에서 구라사업을 함께 실시했다.

광주는 군산보다 규모가 클뿐 아니라 미국 선교사인 놀랜이 1899년 부터 의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의 술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병원을 찾는 환자수도 매우 많았다. 부임 얼마 후 부터는 하루에 200여명의 환자가 몰려들어 눈코 뜰새없는 바쁜생활 이었다. 거기에서 애양원의 나환자들까지 돌보아야 하고보니 더욱 바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술년 한일합방 이후 식민지 통치가 본격화 되어가던 1911년 9월 나라 잃은 설

움을 청진기로 달래면서 다시 목포로 내려가 목포 야소교 병원장에 취임한 해관은 여기서도 의료봉사와 교육사업을 함께 전개했다. 미국 선교부의 요청에 의해 이를테면 전속을 한 셈이었다. 목포에서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진료는 물론 주말이면 배를 타고 남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을 순방하면서 가난한 낙도 어린이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일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된 일이었다. 그뿐 아니라 1903년 미국 장로교 선교회에 의해 설립되었던 정명(貞明) 학교 교장직을 맡은 그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통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면 모든 국민이 깨우쳐야 한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역

설하기도 했다. 당시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은 1911년에 제정 발표한 이른바 조선교육령에 따라 일본인 교사 배치와 일어(日語)를 통한 각종 교육의 의무화 등이 강요되었다. 그 강압에 못이겨 일부 사립학교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또한 이때 한국에 온 대다수 외국 선교사들이 의료사업이나 교육 사업중 한 가지 사업을 택해서 선교사업만을 병행하던 예와는 달리 해관은 부임 초부터 의료, 교육 선교사업을 겸행하여 일인삼역을 하였으니 목포에서의 활동 또한 초인적이라 할 수 있었다.

그가 목포로 내려간지 10개월만인 1912년 5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서 세브란스 의학전문 학교에 파견하는 대표로 뽑혔으니 이 또한 귀국 5년만에 얻어진 행운이요 그가 전공한 의학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개화초 18세 소년으로 배재학당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29세부터 34세까지 의료 선교사 병원장으로 활약하면서 2개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2개 학교에서는 몸소 교편을 잡았다.

1912년 5월 12일 해관 오공선은 5년 동안 지방에서 전개하던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정리하고 세브란스 의학교 교수로 취임했다.

의료선교사로 활약하던 그가 서울로 올라와 세브란스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설립초부터 미국 북장로회에서 단독으로 운영해 오던 이 학교운영에 이해부터는 5개 교과 선교회에서 참여 했기 때문이

다. 미국 장로회 파견대표로 의학교육에 참여하게된 해관은 이때 부터 1942년 교직을 정년퇴직 할 때 까지 31년동안 「세브란스」 의전을 지키고 키운 주춧돌 노릇을 하였다.

그는 1916년 4월 새로 제정된 전문학교 교수자격 제한조치에 따라 동경제대 의학부에 들어가 1년간 연구생활을 하고 돌아왔고 1917년 5월에 정규전문학교로 승격된 세브란스 의전에 피부과를 신설하고 과장겸 주임교수로 승진하였다.

1919년 1월에는 고아 보육사업을 하기위해 경성보육원을 설립하여 고아의 양육사업을 시작하였다.

1921년 3월에는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겸하고 있던 에비슨 교장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보직없이 해관의 도움을 받아오다가 드디어 그를 학감으로 임명하고 학사행정의 대부분을 맡게되었다. 이 때부터 세브란스 의전의 실질적인 제2인자가 되어 에비슨 교장의 신임을 독차지 하게된 해관은 명학감으로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으며 그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한국인 교수로서 처음으로 부교장, 교장으로 승진되어 세브란스를 명실공히 중흥시키는 주인공이 되었다.

1934년 2월 16일에 재단 이사회에서 에비슨 교장 후임으로 제2대 세브란스 교장에 선임되어 정식 취임하였고 곧 이어 세브란스를 일본 문무성 지정학교로 승격시켜 일본, 만주, 대만 등지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의사면허를 받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였다. 그의 모교인 미국의

센츄럴 대학에서는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루이빌 의과대학에서는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보내오는 등 그에게는 영예로운 한해였다.

그는 곧 안양 기독교 보육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세브란스의 명예 교장직과 재단 이사직을 갖고 있으면서 일제탄압에서 「세브란스」 수호라는 방탄역을 도맡아 끝까지 버티고 지켰었다. 결국 그는 개화초기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한국 의학을 개척하고 토착화시키는 데에도 크나큰 업적을 남겼지만 일제 말기 한국 의학계가 질식을 당하던 고비에서도 그 난관을 뚫고 수호 하는 데도 큰 몫을 하였던 것이다.

해관이 평교수 때인 1919년에 설립했던 경성보육원을 1936년 9월 안양으로 옮기면서 명칭도 바꾸고 시설도 크게 확장했던 이 고아원은 그동안 대리 관리인이 운영을 맡았지만 1942년 초 설립자 자신이 맡으면서 더욱 활기를 찾았다. 공직에 있을때는 이사장직만 맡아오던 해관은 원장 자리를 직접 맡으면서 안양으로 옮길 당시 8만여평 밖에 되지않던 보육원 터전을 7만여평이나 더 매입하여 15만 평이나 되는 임야에 고아들의 낙원을 이룩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알리는 일본 천황의 육성 방송을 듣는 순간 해관은 누구보다도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세브란스 의전 재직시는 물론 고아들의 구제를 위한 자선 사업을 하면서 까지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아야만 했던 67세의 고령인 그로서는 감회

가 오죽했으랴!

8·15해방을 맞이한 후 “아놀드” “하지” 등 미군정 요인들로 부터 관계에 나설 것을 권유받기도 하고 정치인들로 부터 정계 진출을 요청 받기도 했지만 그를 모두 사양하고 오직 외롭고 어려운 보육사업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1950년 공산군의 불법남침으로 일어난 6.25 동란은 해관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 주었다. 이른바 친우였던 이승만 대통령과의 마찰(6.25피난지에서 구황실재산관리총국장에 위촉되었으나 의견 충돌로 몇달 후 사임)도 슬픈 일이었지만 피난 도중에 많은 고아들이 폭격으로 폐죽음을 당했던 일이며 장래를 촉망했던 장남 한영씨(1950년 10월에 보건부장관에 임용 되었다가 1년 3개월만인 1952년 2월 신병 치료차 사임후 두달 후인 4월 14일 55세를 일기로 노부 앞에서 운명)을 부산 피난지에서 잃은 것은 남들이 느껴보지 못한 슬픈 일들이었을 것이다.

그는 1953년 관직에서 물러난 차남에게 보육원 이사장직을 넘겨주고 원장자리만 맡으면서(76세) 노익장으로 조용히 만년을 보내다가 1962년 11월 15일에는 고아의 아버지로 추앙 받던 오박사에게 소과상이 수여되었다.

1963년 5월 18일 86세를 일기로 서대문구 대조동 자택에서 천수를 다하여 유명을 달리하였다. 5월 22일 연세 의과대학장으로 영결식을 올린후 망우리 가족묘지에 안장되었으며, 8월 15일에는 정부로 부터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이 추증되었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